



권준 목사의 목양 칼럼
사랑하는 형제에게

link

예배는 “0” 순위입니다.

벚꽃이 아름답게 핀 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겨울을 보내면서도 잊지 않고 꽃을 피우는 나무들을 보며 창조된 자연의 질서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예배 40일”의 “예배는 “0” 순위입니다.”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칠 수 없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첫 순위가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형제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나, 교회 나오기를 쉬는 분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단호하게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이야기하기가 미안하셨을 수 있어서인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후에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안정되면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지금 아파서 치료 중인데 그 치료가 끝나면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이 지금 한참 자라는 때라 손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함께 보내야 하므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들 삶에서 예배는 우선순위

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며 신앙을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정이 있어 교회를 나올 수 없지만,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예배가 그들 삶의 옵션인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환경이 되면 예배드리고 아니면 마는 분들, 그리고 예배를 가끔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 자신의 스케줄과 자식들의 스케줄이 예배의 시간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저의 삶에 있어 예배는 1순위 위의 “0” 순위 위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먼저 스케줄을 짤 때 넣어 놓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다 넣고 남은 시간에 예배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예배의 힘을 통해 나머지 삶이 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형제와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고 그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HYUNGJAE WEEKLY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 |

현장 예배: 오전 8:00, 오전 9:40, 오전 11:30, 온라인 예배: 오전 8:00, 오전 9:40, 오전 11:30, 오후 1:30 이후

51-12. 3. 20. 2022

impossible
희년을 노래하라

예배 40일 (2)

예배는 “0-순위”입니다

누가복음(Luke) 14: 25~27

권준 목사 (James Joon Kwon)

2022년 공동체 40일

3/13-4/17/2022

*각 공동체 순장들께서는 공동체 필사를 한 나뭇잎을 40일 안내 데스크에서 제출해 주시고, 새로운 나뭇잎을 받아 가지길 바랍니다.

*개인 필사한것은 사진으로 찍어서 40일 웹사이트에 올려 주길 바랍니다.

worship40days.hyungjae.org

온라인 순모임 (with 공동체 목회자들)

일시: 40일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30-9:00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동체 목회자들에게 zoom link를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사랑의 헌금

3/20(오늘) 예배 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사랑의 헌금 봉투에 넣어 헌금해 주십시오.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www.hjservic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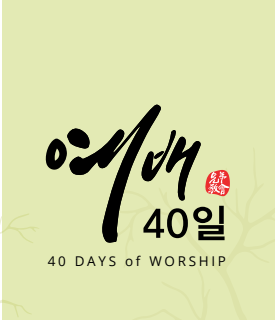
주일예배 영상과 교회소식, 주보는 형제교회 웹사이트, 앱,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hyungjae.org | facebook.com/CCSHyungjae | youtube.com/hyungjaetv |

주일예배 설교가 2부 예배 시 영어로 동시 통역되고 있습니다. 통역 수신기는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nglish interpretation for the sermon is available for 2nd services. Headsets are located at the front desk.

헌금은 예배 전에 로비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온라인(hjservice.org)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Offering may be given online(hjservice.org) or placed in the boxes located in the lobby.



두 번째 순모임 나눔

예배는 0-순위입니다

● 들어가며

여행하다가 보면 호텔에서 개인이 혼자 방을 쓸 때도 있지만 호스텔 또는 게스트 하우스와 같이 한 방을 3명에서 10명까지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호스텔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많은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을 놓기보다는 나의 마음 안에 예수님과 다른 손님들이 그 공간을 나눠 쓰도록 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서 오직 전심을 쏟는 관계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직 그분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도 우리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전적인 사랑을 받기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 본문 함께 읽기: 누가복음 14장 25~27절

말씀 핵심 포인트: 예배는 나의 ()를 재정비하기를 요구합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을 요구하십니다.
2.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님이 ()가 된다는 것입니다.
3. 예배자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해야 합니다.

● 적용하기

1.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1-5까지 적어 보세요.
2.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3. 지난주에 성경 필사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 다음 주를 위한 준비

1. 성경 필사: (공동체) 누가복음 14장 25~27절, (개인) 시편 23편부터 47편까지 필사하세요.
2. 나의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나눌 준비를 해주세요.

예배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30, 비전홀
금요성령집회(3/25): 오후 8:00, 비전홀
 김형균 목사 (“이런 기도 어떠세요?(2)”, 느헤미야 1:1-11)

주일 예배(3/27): 남현수 목사, 예배 40일(3)

감사

간식

1부: 최일준, 이현주
 2부: 백철현, 한영희, 장선진/준박
 3부: 이윤표, 윤경아, 신용숙

새가족

새가족 온라인 등록 안내 [link](#)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새 가족실 (201호)에서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름	시
김현준 / 호다정	Bothell
이선옥	Mukilteo
박찬혁 / 조영하	Bothell

생명의 삶 1년 정기구독권

1년 정기구독 \$75/ 문의: 형제 서점

여성사역

커뮤니티 여성 예배, 소그룹 현장/온라인 모임

(ZOOM ID 837 7980 2384)

·말씀: 심미정 목사, 로마서 7:1-25

·일시: 3/23(수), 오전 10:00

·장소: 바셀캠퍼스 빌딩 Worship Hall

·자녀케어: 1살 이상-5살 미만

·문의: 김상미(206.617.0125), 김비비안(206.697.5071)

새가족과 리더들의 만남

·일시: 3/24(목), 오전 10:00

·장소: 바셀캠퍼스 빌딩2 101호

·대상: 2022년 새 등록자 (현장)

기타

교역자 동정: 권준 목사. 남가주 ANC 온누리교회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 인도, 3/24-29

득남(지우/Amos Jax Nam): 남현/남줄리 부부 셋째 아들, 3/12 출산, 4공동체

생명의 삶 4월호: 각 주일예배 후 서점에서 판매

마스크 착용 자율화 안내

3/20(주일)부터 교회 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됩니다. 필요한 분은 착용해 주시고 교육부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착용하는것을 권장 합니다. (주중 UCIC School Hours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